

# 보GO 상상하GO 즐기GO

## 전북도, 20일부터 도청 일원서 과학축전 개최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제14회 전북도 과학축전'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전북도청 일원에서 개최된다.

'꿈과 상상이 눈앞에! 신나는 과학축전!'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축전은 과학꿈나무와 도민들이 '보고, 느끼고, 상상하고, 이해하고, 즐기고' 할 수 있도록 축전을 준비하였다는 의미로 '상상을 앞지르는 5G, 상상하는 전북꿈나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와 관련해 전문강사의 지도로 기본 개념을 배우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관람객 호응도가 높은 가상현실(VR) 체험을 비롯하여,

서비스 로봇, 3D프린팅,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재미난 체험을 통해 만나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올해에는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농생명·바이오'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하여 도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대폭 편성했다.

또한 기초과학부터 응용과학까지 과학의 원리를 쉽게 배워볼 수 있도록 도내 초·중·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과학교육체험관'도 '유치부', '학생부'로 체험 연령층을 구분해, 55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소프트웨어(SW)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지난해 관심이 높았던 점을 반영해 기존 12개에서 16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편성했다.

이외에도 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과학놀이 쉽터가 되는 '유아존'을 구성하고, 장시간 대기로 인한 지루함을 달랠 수 있도록 버스킹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축전에 올 기회가 적었던 도내 원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송버스를 지원하여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축전 테마는 '전북존', '미래존', '누리존'으로 구성해, 행사장에 방문한 관람객들이 전라북도 과학축전에서 발전하는 과학의 미래를 체험하고, 축전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

유희숙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과학축전에서의 즐거운 체험이 청소년들에게 과학적 상상력과 영감의 원천이 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도민들에게도 전라북도 과학기술과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상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점검 대책회의  
 국내에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파주시에 발생한 1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자동차 전장부품기업 연구개발 지원 본격화

### 도, 개방형 연구실 '리빙랩' 구축

전북도와 전자부품연구원은 도내 자동차 전장부품기업의 현안을 해결해 기업의 역량 제고를 도모하는 전장부품기업 현안해결 리빙랩 연구개발(R&S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전장부품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부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중순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과제 3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8월 중순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전자부품연구원은 이달 16일부터 공모를 통해 기업을 추가 모집하며, 모집대상은 도내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대학 및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참여가 불가하다.

도 내해수 과장은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장부품 기업에 적극 지원하여 미래형 자동차의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이번 사업이 기업에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향후 도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이러한 사업의 특징은 개방형 연구실(Living Lab)을 조성해 기존 공공지원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는 사업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도출하는 것이다.

지원규모는 과제당 1억원 이내로 총 3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8월 중순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 전북도, EBS와 문화콘텐츠산업 동반성장 업무협약

전북도는 17일 도청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와 '기능성게임 및 에듀테크 산업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김명중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황인수(주)EBS미디어 대표이사, 최용식(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의 우수한 문화자원 및 ICT기술과 인지도 있는 EBS의 캐릭터 및 교육콘텐츠가 만나 문화

콘텐츠산업의 동반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상호협력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최신통보 상호 제공 ▲미래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에듀테크 사업 활성화 ▲문화콘텐츠 융복합 프로젝트(OSMU 사업, 지식재산 활용 콘텐츠 제작지원 등) 공동기획 및 실현 ▲기타 협력에 필요한 제반사항 상호 활용 등이 있다.

이번 상생협력 협약 체결로 EBS는 전북도내 14개 시군의 교육·관광·문화·역사 등의 지역별 문화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에듀테크 사업을 통한 지역 창의인재를 육성함으로써 도내 문화콘텐츠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기업의 매출 증대, 더 나아가 지역의 인제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BS는 도내 다문화가정 및 문화 소외의 지역 대상의 콘텐츠 제작 및 도내 콘텐츠기업 및 종사자의 발전을 위해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체조경연대회 28일 실시서 팡파르

생활체조 동호인들의 축제의 장인 '2019 전북체조경연대회'가 펼쳐진다. 17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전북체조경연대회가 오는 28일 입실군민회관에서 성대하게 열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조경연대회는 동호인리그 왕중왕전과 함께 진행됐지만 해가 갈

수록 체조 동호인들의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분리해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에서는 민속체조와 댄스체조, 수련체조, 요가 등의 종목이 펼쳐지며 도내 각 시·군에서 총 45개팀 950여명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게 된다.

시상은 장원상 1팀을 비롯해 금상과 은상, 동상, 우수상, 장려상 등으로 나눠 응원상도 주어진다.

개회식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며 식전공연과 식후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초청가수의 공연 등도 펼쳐진다.

전북체육회 최희원 사무처장은 "생활체조는 연령대 상관없이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다"며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관광의 매력! 세계 100여국 안방으로

### 개별관광객 타겟으로 '아리랑TV'에 전북관광 특집방송 제작 국내아이돌과 말레이시아 크리에이터가 관광지 직접 돌아 네이버TV·유튜브 등에 라이브로 전송·30여회 반복 방영

전북도는 '여행체험 일번지로서의 전북'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17~18일간 세계 105국 1억4천만 가구가 시청하는 '아리랑TV'에 전북관광 해외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Travel Agency시즌2'라는 이름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5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전라북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국내아이돌 스타와 직접 초청한 해외 유명 크리에이터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여행 상품을 아리랑TV를 통해 해외에 소개하는 형식이다.

17~18일 전주한옥마을, 진안 마이산, 장수 승마체험장 등 일원에서 촬영이 이어지며, 국내 아이돌스타 크리스 추(Krishna Chu, 21세,여)와 말레이시아 유명 크리에이터인 칼리드(Karlead, 20대, 남, 구독자수 15만)가 전북투어패스카드를 가지고 관광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체험하고 느끼는 감성을 그대로 전한다.

모든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며, 첫날은 한옥마을 골목투어, 한복체험, 역사관, 비빔밥 점심식사, 경기전 투어 및 오목대에서 전주 야경을 감상하고, 둘째날은 신비의 진안 마이산 탐사 투어, 홍삼산과 체험 후 장수승마체험장에서 직접 승마를 탄 후 정수축재지로 저녁을 먹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직접 체험하며 촬영하는 상황은 네이버TV,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생방송으로 방영된다. 또한, 이날 촬영한 방송량은 30분 2회로 편집되어 아리랑TV의 아리랑 코리아, 아리랑 월드, 아리랑 월드에 약 30회 정도 반복 방영된다. /김진성 기자

아리랑 TV는 한류의 열풍으로 SNS는 1000만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으며, 아리랑 TV 월드 채널은 세계105개국에 약 1억4000만가구가 시청하는 세계적인 위성채널로 알려져 있다.

전북도는 이번 촬영 및 방영으로 동남아지역의 개별관광객들이전북도를 직접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한 전라북도 이형열 홍보기획과장은 "본 프로그램은 개별관광객이 전북으로 와서 전라북도 투어패스를 가지고 전북의 맛과 음식, 특색있는 관광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그 느낌을 그대로 전하는 만큼 동남아 개별관광객들이 전북을 찾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뉴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해외홍보를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에서는 이러한 해외홍보관광프로그램에 올해로 3번째 참여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시군을 달리하여 골고루 홍보하고 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